

면운치전

던운치전

고전소설

이 시리즈에 관하여 6

들어가기 전에 8

제1장 던운치전 권지단 10

1 전운치의 출생과 성장 11

2 여우의 호정을 먹다 13

3 세금사 구미호에게서 천서를 얻다 15

4 황금들보 22

5 전운치의 활약 26

억울한 살인자를 구해준다 26

욕심많은 관리를 혼내준다 28

교만한 청년들을 혼내준다 28

고직 장계창 30

신기한 족자 31

6 전운치의 벼슬살이 34

자현하다 34

백사정 허참례 35

도적 염준을 잡다 37

선전관들을 혼내준다. 43

호조 창고가 복구되다. 44

누명을 쓰고 임금을 하직하다. 45

7 여러 전운치를 잡아들이다 47

호색하는 중 47

도승지 왕연희 48

8 족자 속의 미녀와 뱀이 된 민씨 51

9 양봉안의 상사병 55

친구 양생을 위하여 과부를 납치하다 55

강남도령에게 혼나는 전운치 57

다른 정씨를 데려가다 59

10 서화담을 만나다 60

용담과 재주를 겨루다 62

화담에게 헛되이 약속하고 가르침을 받다 64

11 뒷이야기 66

어린 시절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바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 할 정도는 삼중당 문고였다고 할 수 있다. 장정일이 이미 설파한 대로. 150원하던 삼중당 문고는 책 이외에 마땅한 오락이 없던 시절에 거의 유일했던 장난감은 아니었을까? 장정일의 시에서 재미있는 표현은 “경제개발 몇개년 식으로 읽 어간 삼중당문고”라는 것인데, 실제로 나는 경제개발 몇개년 은 모르겠으되 번호순으로 빠뜨리고 읽지 않은 것을 체크해본 경험은 있다. 그리고 삼중당 문고는 꼭 한 권씩만 샀는데, 그 이유란, 민망하지만 책을 사러 갈 때마다 책방 누나를 한 번 더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게 문고본 책은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 시리즈의 북 디자인은 책세상의 ‘책세상문고·우리시대’의 것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였다. 한글 문서의 \TeX 조판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예제 성격이 강한 까닭에 이렇게 디자인을 베껴보는 것이 좋은 샘플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 문이다. 한 권의 책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코딩해야 할 부분을 적어도 최소한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제가 되었다 싶다.

어차피 샘플 문서인 관계로 오로지 이 책 단 한 권만 ‘출판 (?)’ 할 것이며 그나마도 권지하 부분은 빠뜨리고 실지 않은 불 완전한 모양이기는 하나 번역이라 할 수도 없는 현대어 전사

과정에서 상당한 재미를 느꼈다. 저작권 문제가 있는 까닭에 현대어로 옮기는 것은 전부 내가 하였으나, 나 자신이 고전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 오역과 오독이 술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소스에 원문을 그대로 살려 두었으니 미심쩍은 분들에게서는 번역문을 참고하지 마시고 소스의 원문을 보실 것이다.

옮겨적음에 있어서 나는 고전의 문장의 맛을 그대로 남겨 두고 싶었다. 특히 우리 고전의 유장한 ‘이야기체’, 즉 쉼표 단위가 아니라 이야기로 흐르는 글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그대로 옮겨지지 아니한 것들도 많다. 특히 속향전은 다른 고전에 비하여 대화체가 매우 화려한데, 좋은 관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독서의 효율을 위하여 대화 단위로 행을 바꾸도록 애썼다. 어휘에 있어서도 의미 파악에 지장이 없는 것이나 대략 뜻을 알 수 있는 것일 때는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두었으며, 현대어에서 의미가 변한 것이 있더라도 역시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면 ‘발행’을 ‘출발’로 고치지 않았으며 ‘인간’은 현대어에서 그 뜻이 변하였으나 ‘세상’을 의미하는 원래의 ‘인간’을 그대로 썼다.

되도록 주석없이 고전을 원문에 가깝게 읽을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 잘 아는 분께서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시면 좋겠다.

이에 실은 글은 <전운치전> 경판 37장본을 옮겨 적은 것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사실은 다음 글을 읽으소서.

- 김현양의 고전 소설 산책: 전우치전의 두 계열
- 김현양의 고전 소설 산책: 전우치전과 홍길동전의 같고 다른 점
- 김현양의 고전 소설 산책: 도술의 힘과 한계
- 김현양의 고전 소설 산책: 불온한 판타지의 전통

이 가운데 세번째 ‘도술의 힘과 한계’를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나다.

제1장 던운치전 권지단

면운치전 권지 단

1. 전운치의 출생과 성장

화설, 고려말 남서부 땅에 일위¹ 명사 있으니 성은 전이요, 이름은 숙이요 별호는 운화선생이라. 대대 공후 자손으로 숙에게 이르러서는 청운에² 뜻이 없어 몸을 산림에 숨기고 글을 숭상하며 혹 벼를 모아 산천과 풍월을 문답하여 세월을 허비하니 시인³이 이르기를 산중처사라 하더라.

부인 최씨는 잠영거족⁴이요 조한정정⁵하여 색덕이 겸비하니 처사가 상경상화⁶하여 동주⁷ 십여 년에

슬하가 적막함을 주야 탄식하더니, 일일은 최씨가 일몽을 얻으니 천상으로부터 한 무리의 구름이 내려오며 구름 속에서 청의 동자가 벽련화⁸를 쥐고 나와 부인에게 재배 왈, “소자는 영주산⁹에서 채약하던 선동이러니 천상에서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시매 갈 곳을 모르오니 부인은 어여뵈 여기소서.” 하거늘, 부인이 대희하여 다시 묻고저하다가 문득 깨달아¹⁰ 심신이 황홀하여 처사를 청하여 몽사를 이르니 처사가 청파에¹¹ 왈, “우

¹한 분 ²벼슬살이 ³당시 사람들 ⁴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집안 ⁵암전하고 몸가짐이 조신하다. ⁶서로 공경하고 화목하게 지냄

⁷함께 살다 ⁸많은 곳에서 ‘백련화’ 흰 연꽃이라 하고 있는데 ‘푸른 연꽃’ 벽련화가 옳은 듯 ⁹신선이 산다는 상상의 산. 제주도에도 영주산이 있다. ¹⁰깨어나 ¹¹듣기를 마치고

리 팔자가 기박하여 무후할까 슬퍼하였더니 이제 부인 몽사가 여차하니 이는 반드시 하늘이 귀자를 점지하심이라.” 하며 기꺼워하더니

과연 그 달부터 태기 있어 십삭이 차매 일일은 채운이 집을 두르며 향취가 진동하거늘 처사가 정당을 쇠소하고 때를 기다리더니 부인이 혼미 중에 눈을 들어 본즉 전일 꿈에서 보았던 동자가 나아들거늘 부인이 반가운 중에 정신이 아득하더니 이윽고 일척 옥동을 낳은지라. 처사가 대희하여 일편 부인을 구호하며 아이를 살펴본즉 용모가 화려하고 기골이 장대하니 처사가 대희하여 왈, “이 아이 꿈에 보았던 동자니 이름을 운치라 하고 자는 몽중선이라 하고 별호를 구십재”라 하여 애중함이 비할 데 없더라.

운치 점점 자라 칠 세에 이르러는 처사가 글을 가르치매 총명영오¹²하여 문일지십¹³하니 처사가 과애¹⁴하여 십 세에 이르렀더니

슬프다, 흥진비래¹⁵는 고금 상사¹⁶라. 처사 홀연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부인을 청하여 왈, “내 헤아리건대 불구에¹⁷ 황천객이 될지라. 아자의 장성함을 보지 못함이 가장 유한이니 부인은 모름지기 슬픔을 억제하여 나의 부탁을 저버리지 말고 운치를 양육하여 영화를 보고 조선 향화를 받들어 백세 무양¹⁸하라.” 하거늘,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실성 체읍하여 말을 이루지

¹²영리하고 슬기롭다 ¹³하나를 들으면 열을 앎. ¹⁴매우 사랑함

¹⁵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온다 ¹⁶예나 지금이나 흔한 일 ¹⁷오래지 않아 ¹⁸탈없이 지냄

못하더니 수일 후에 처사가 기세한지라.

부인이 벽용¹⁹ 통곡하며 운치 또한 호천망극²⁰하여 자로²¹ 기절하매 부인이 망극 중이나 아자를 염려하여 지극 위로하며 운치 비록 나이 어리나 집상함에 예의 어김이 없어 초종²²을 극진히하여 선산에 안장하고 모친을 모셔 삼상을 지효로 지내니 향당²³이 탄복하더라.

2. 여우의 호정을 먹다

각설, 전처사의 친봉 윤공이란 사람은 문장이 광박하고 명견만리하는지라. 운치 서책을 가지고 윤공께 수학하더니

일일은 운치 일찍 일어나 서책을 가지고 서당으로 갈새 한 뒀을 넘어가더니 죽림이 무성한 곳에 한 계집이 소복을 단정히 하고 앉아 울거늘 운치 시이불견¹하고 지나가서 윤공께 글을 배운 후에

집으로 돌아올 제 본즉 그 처자가 그저 울고 있거늘 운치가 괴이히 여겨 나아가 보니 연광이 삼오 이팔은 하고 용모는 옥같이 아리따운 태이되 남자의 마음을 방탕²케 하는지라.

¹⁹가슴을 치고 발을 구른다. 몹시 슬퍼하는 모습. ²⁰호천망극은 ‘어버이의 은혜가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다’는 뜻인데 주로 제사의 축문에 쓰이는 말인 까닭에 여기서는 아버지를 잃은 일을 가리키는 데 쓰임. ²¹방언인 ‘자루’ 즉 자주, 잇따라의 뜻. ²²초종상사의 준 말. 초상이 난 뒤부터 졸곡까지의 온갖 예식을 가리킴. ²³마을 사람들과 친지들 ¹보고도 못 본 척 ²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음

운치 나아가 위로하며 문 왈, “남자는 어느 곳에 있으며 무슨 일로 아침부터 일중³이 되도록 슬피 우나뇨?”

그 여자가 울음을 그치고 부끄러움을 머금고 답 왈 “나는 이 뢰 아래 있더니 서러운 일이 있어 우노라” 하며 즐겨 이르지 아니하거늘

운치 그 곁에 나아가 간절히 물으니 그 여자가 강잉⁴ 대 왈, “나는 맹어사의 딸이러니 오세에 모친을 잃고 계모가 들어온 후로 나를 부친께 참소하여 죽이고저 하매 주야 설워하여 자결코저 하나 차마 못하고 이같이 우노라” 하거늘

운치 차언을 들으매 가장⁵ 긍측히⁶ 여겨 왈 “사람의 사생이 유명하니 남자는 부모 유체를 생각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하고 인하여 옥수를 잡는데 그 여자가 조금도 냉담함이 없으매 혼연히 교합하여 양정⁷이 환흙⁸하다가 이윽고 서로 떠날새 재삼 건권하며⁹ 돌아가니라.

이튿날 운치가 윤공께 나아갈새 그 곳에 이른즉 그 여자가 나와 불러 왈 “내 별써 이 곳에 와 공자를 기다린 지 오래더니라” 하거늘 운치 반겨 손을 잡고 즐기다가 왈 “아직 이곳에 있으라” 하고

서당에 나아가니 윤공 왈 “네 오다가 여색을 범하였으니 글을 배워도 천지조화를 통하지 못하리니 네 이제 돌아가면 그 여자를 만날지라. 그 여자의 입에 구슬을 머금었을 것이니 그 구슬을 앗아다가 나에게 보이라.” 하거늘

³낮. 정오때 ⁴마지못하여 ⁵매우 ⁶불쌍하고 가엾게 ⁷음
양의 정기 ⁸즐겁고 흡족함 ⁹뒤돌아보며

운치 수명하고¹⁰ 그 곳에 이르러 그 여자를 만나 옥수를 잡고 죽림간으로 들어가 정회를 펴새, 운치가 보니 과연 여자의 입에 구슬이 있거늘 한번 구경함을 청한즉 즐겨 보이지 아니하니, 운치가 정색 왈 “남자도 규중처자요 나도 미혼전이매 피차 부모께 고하고 원앙의 *을 지어 백년해로코저 하거늘 남자는 어찌 나의 뜻을 좇지 아니하나뇨?”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정을 못 이겨 입을 서로 닿게하고 혀를 내어 구슬을 굴려 운치 입에 넣거늘, 운치 받아 입에 넣고 오래도록 주지 아니하니 여자가 보채다가 못하여 운치의 입을 벌리고 내려 하거늘 운치가 인하여 삼켰는지라. 여자가 찾아 없음을 보고 일언을 못하고 방성대곡하며 들로 내려가거늘

운치 무류하여¹¹ 돌아와 윤공께 자초지종을 다 고하니 윤공 왈 “네 이미 호정¹²을 먹었으니 천문지리를 통하며 디살¹³ 일흔두 가지 변화를 부리고 또 금년 사월에 진사를 할 것이니, 이후 사는¹⁴ 조심하라.” 하더라.

3. 세금사 구미호에게서 천서를 얻다

차설, 운치 나이 십오 세에 이르러는 문장은 이태백을 압두하고 필법은 왕희지를 대적하며 호정을 먹은 후로는 구후삼십육 변화를 능통하는지라.

¹⁰명을 받들고

¹¹머쓱하다

¹²여우의 정

¹³드살. 휘어잡아

¹⁴일은

이 때 국가에서 감시¹를 보일새, 운치 장중에 들어가 글을 지어바친 후에 장원에 오르매 삼일유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모친을 뵈온대 최부인이 일희일비하여 왈 “너의 부친이 생시에 과거 보기를 즐기지 아니하더니 이제 네 영화를 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리오.” 하더라.

이러구려 광음이 여류하여 명년 춘이 되매

운치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더니 세금사란 절에 이르러 본즉 천여 간 전각이 거미줄에 감추이었고 중생이 하나도 없는지라. 마음에 괴이히 여겨 성림사로 내려오니 노승 사오 인이 나와 맞거늘, 운치가 세금사 곡절을 물은대 노승 왈 “세금사와 이 절 중이 천여 명이 되더니 사오 년 내로 두 절에 재변이 있어 중생 등이 능히 부지하지 못하여 혹 이산하며 혹 간 데 없사와 세금사는 다 비었고 이 절에 불과 노승 등 사오 명이라.” 하거늘 운치 왈 “이는 반드시 요열²이 장난함으로다.” 하고

집에 돌아와 모친께 세금사 연고를 고한대, 부인 왈 “차후는 조심하라.” 하거늘 이후로는 운치 농업에 힘써 모친을 봉양하더니

일일은 세금사에 가 공부하여 명년 과거봄을 고한대

부인 왈 “전에 들은즉 그 절에 요열이 많아 사람을 해한다 하니 어찌 그곳에 가려 하나뇨?”

운치 대 왈 “사불범정³이오니 어찌 조그만⁴ 요열이 침노하리요? 모친은 과념 마소서.” 하고

¹소과. 생원과 진사를 뽑는 시험.
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

²요약한 귀신의 장난

³요사

⁴하찮은

즉시 행장을 수습하여 세금사로 갈새 한 곳에 이르러는 층암 절벽 위에 일위 노인이 갈건야복으로 청려장⁵을 짊고 한가히 섰거늘, 운치 나아가 예한대, 노인 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관대 수고로이 예하느뇨?”

운치 대 왈 “노인이 이에 계시니 소자가 어찌 무심히 지나오리이꼬?”

노인 왈 “내 그대에게 줄 것이 있어 이곳에서 기다린 지 오래더니라.” 하고

소매에서 부용승이란 노⁶와 부적 한 장을 주며 왈 “자연히 쓸 곳이 있으리라.” 하고 문득 간 데 없거늘 운치 공중을 향하여 사례하고

노와 부적을 가지고 세금사로 들어가 시동에게 명하여 방장을 쇄소하고 성림사 중에게 석반을 시켜먹고 축을 밝혀 글을 읽더니

삼경은 하여 문득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와 엄연히 곁에 앉거늘 운치 눈을 들어 본즉 그 여자 연광이 이철은 한데, 화려한 용모는 모란이 아침이슬을 머금듯, 선연한 태도는 수양이 춘풍을 못 이기는 듯하매 가히 장부의 간장을 녹일지라.

운치 신흔이 황홀하여 왈 “낭자는 어디 있관대 이 심야에 무슨 연고로 왔나뇨?”

여자가 대 왈 “첩은 본디 사족 부녀로 가군을 따라 장양 태수로 가다가 도적을 만나 가속을 다 죽이고 행장을 잃고 첩이 흘

⁵명아주 지팡이

⁶실이나 삼을 가늘게 꼬아 만든 줄. 여기서는 포승줄

로 목숨을 도망하여 낮이면 산중에 숨고 밤이면 행하여 고향을 찾아가다가, 멀리서 창 의 축영을 바라보고 촌가인 줄로만 여겨 왔더니 남자의 글 읽는 소리가 분명하나 일신이 곤뇌하므로 불 계 체면하고⁷ 들어왔사오니 원컨대 상공은 잔명⁸을 구하시면 타일에 결초보은 하리이다.”

운치 왈 “사람의 화복은 임의로 못하나니 낭자가 적환을 면 하여 이곳에 이름이 또한 다행하거니와, 알지 못게라, 낭자의 귀택은 어디며 연량은 얼마나 하뇨?”

여자가 왈 “첩의 집은 경성 남문 밖이오 나이는 십칠이로소 이다.”

운치 왈 “나와 동갑이오. 경성이 예서 상거⁹가 삼백여 리니 여자가 어찌 득달하리오? 생이 실로 염려하노라.”

여자가 탄식하여 왈 “상공은 첩의 정상¹⁰을 불쌍히 여겨 하룻밤 머물러 감을 허하소서.”

운치 왈 “생이 집이 빈한하므로 지금까지 취처하지 못하고 명춘 과거에 천행으로 등과하거든 혼취할까 바라더니, 금야에 낭자를 만남이 또한 연분이라. 원컨대 이성지합을 맺어 백년동락함이 어떠하뇨?”

여자가 청파에¹¹ 아미를 숙이고 일언 불답¹²하니 부끄러워 하는 태이되 축하¹³에 더욱 절승¹⁴한지라.

운치 서안을 물리고 왈 “생이 우연히 한 말로 낭자가 이렇듯

⁷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⁸남은 목숨 ⁹떨어진 거리 ¹⁰사정과 형편 ¹¹듣기를 마치고 ¹²부답. 답하지 아니함 ¹³춧불 아래
¹⁴자태가 빼어나게 좋음

노하니 도리어 무류하거니와 낭자는 생각하여 전정을 그르치게 말라.”

여자가 침음양구에¹⁵ 왈 “첩의 일신이 곤박하나 또한 사문¹⁶ 일맥이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욕을 감심¹⁷하리오마는 상공 말씀을 듣자오니 감사 무지라. 후일에 원수를 갚아 주실진대 존명을 어찌 봉승치 아니하리요.”

운치 이 말을 들으매 마음이 방탕하여 인하여 친합¹⁸하고 문왈 “금일이 좋은 날이니 마땅히 합환주로 천지께 맹세하리라.” 하고 죽병의 술을 잔에 가득 부어 먼저 먹고 또 부어 권하니 여자가 감히 거스르지 못하여 마시거늘, 운치가 또 한 잔을 부어 권하되 여자가 굳이 사양하는지라. 운치가 왈 “술을 일이배 먹거든 무엇이 관계하리요?” 하니 여자가 마지못하여 먹거늘 운치가 다시 한 잔을 마시고 한 잔을 부어 또 권한대 여자가 죽기로 사양하는지라. 운치가 정색 왈 “여자가 군자를 좇음에 순종함이 옳거늘 어찌 이렇듯 무례하뇨?” 여자가 생의 기색을 보고 강잉히 받아 마신 후에 정신이 혼도하여 자리에 거꾸러져 코를 골거늘

운치 그제야 여자의 옷을 벗기고 주필로 여우의 가슴에 진언을 쓰되 흔적이 없으매 분명코 여우인 줄 알고 부용승을 내어 수족을 동이고 송곳으로 정박이¹⁹를 쑤시며 방추²⁰로 두드리니 여자가 놀라 깨어 대호 왈 “상공아 이 무슨 일이뇨?”

¹⁵속으로 깊이 생각한 지 오랜 뒤 ¹⁶선비 집안 ¹⁷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임 ¹⁸남녀가 잠자리를 같이함 ¹⁹정수리의 잘못. ²⁰날이 네모난 송곳

운치 대매²¹ 왈 “이 몸쓸 여우 년아, 네가 이 절에 작얼하여 생령을 살해하매 내 너를 죽여 인간 해를 덜려 하여 이에 기다린 지 오래더니라.” 하며 송곳으로 두루 쭈시니 그 요괴 견디지 못하여 본상²²을 드러내어 금터럭이 돋치고 꼬리 아홉 가진 여우가 되어 살기를 빌거늘

운치 왈 “나에게 호정 하나를 주면 너를 살리리라.”

구미호가 왈 “호정은 뱃속에 있거니와 호정보다 더 나은 천서 세 권이 있으니 목숨을 살려주소서.” 한대

운치는 본디 서생이라 책 말을 듣고 반겨 왈 “그 책이 어디 있나뇨?”

요괴 왈 “내 굴에 있으니 나를 끌러놓으면 가져오리이다.” 하거늘

운치 대로하여 송곳으로 두루 쭈시니 요괴 왈 “발 맨 것을 끌러놓으면 상공과 함께 가서 책을 드리리이다.”

운치 그 말을 옳게 여겨 발을 끌러놓고 따라 여우굴로 가니 큰 산에 장대한 바위 있고 그 아래 굴이 있는지라. 그 안으로 오 리나 들어간즉 송죽이 창창하고 시내가 잔잔한 곳에 무수한 집이 단청이 찬란한지라.

운치 여우를 앞세우고 들어가더니 채의 입은 시녀가 나와 맞으며 왈 “아기씨 오늘 산행²³하러 가시더니 사망 일어²⁴ 오시매 맛 좋게 먹으리라.” 하며 달려들거늘 운치 대로하여 잔 요괴를 낱낱이 쳐죽이고 구미호를 송곳으로 쭈시니 구미호가

²¹크게 나무라

²²본래 모습

²³사냥

²⁴그물을 일으켜

견디지 못하여 시녀에게 왈 “너는 빨리 가 성적함 속에 있는 세 권 책을 가져오라” 하거늘 요괴가 급히 가져왔는지라. 운치가 받아본즉 천서라. 글자를 알아볼 길 없으며 구미호더러 글 뜻을 가르치라 하니 구미호가 왈 “손을 끌러놓으면 가르치리이다.” 하거늘 운치 송곳으로 찌르며 방추를 드니 구미호가 허락하며 운치가 노를 끄르지 않고 왈 “나 있는 절로 가자.” 하고 구미호를 데려 세금사로 와서 술을 마신 후에 구미호를 앉히고 천서 상권을 배워 일야간에 다 통달하니 짐짓 귀신도 측량치 못할 술법이라. 그제야 운치 여우의 맨 것을 풀고 등의 부적을 떼어 천서 상권에 붙이고 일러 왈 “너를 죽여 후환을 없애고자 하였더니 도리어 네 은혜를 입었기로 살려 보내나니 차후 다시 작변 말라.” 한대 구미호가 사례하고 가니라.

이윽고 대풍이 일어나 문이 열리니 청운 속에서 소리쳐 왈 “구십재야, 내 부용승은 찾아가고 부적은 두고 가노라.” 하거늘 운치 급히 나가보니 청운이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공중을 향하여 사례하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홀연 한 선비가 나귀를 타고 들어와 계하에 내리니 이는 윤공이라. 운치 황망히 맞아 말씀할새 윤공 왈 “이 책은 선비에게 불가하거늘 네 어찌 보느뇨?” 운치 미처 답하지 못하여 윤공이 간 데 없으니 운치 대경하여 살펴본즉 천서 한 권이 없으며 가장 의심할 즈음에

문득 들으니 계집의 곡성이 가까워오거늘 운치 나가보니 자기 유모가 산발하고 울며 왈 “모부인이 작일에 평안하시다가 일야간에 상사 나 계시니 상공은 빨리 가사이다.” 하거늘 운치

대경하여 급히 서책을 수습할새 경각 간에 유모가 간 데 없고 또 천서 한 권이 없는지라.

운치 대로 왈 “흉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혈로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하고 방추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굴로 가니 산천이 심수하고 길이 아득하여 길을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한대 ‘이 요괴 변화가 불측하매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상권은 부적을 붙인 연고로 앗아가지 못함이라.

4. 황금들보

운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할 술법이 없으며 과업¹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하면 자연히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여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운을 타고 반공에 올라 바로 궐내로 들어가 대명전에 거중하매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궁중이 혼황²하여 망지소조³하고 조신 등이 상달하되 고금에 드문 괴변이라 한대 상이 대경하사 제신을 모아 의논하시더니 운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 동자가 소리쳐 왈 “고려국 왕은 옥제 전교를 들으라.” 하거늘

¹과거를 보는 것 ²혼화. 시끄럽게 떠돌. ³너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함

왕이 명하사 포진⁴과 향안⁵을 배설하고 나아가 보니 일위
선관이 금관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운 중에 싸이어
단정히 섰거늘 왕이 사배를 마친 후에 복지하신대

운치 왈 “천상 요지 보각이 연구⁶ 퇴락하기로 이제 중수코자
하여 인간 제국⁷에 전지⁸하여 모든 물건을 다 진배⁹하였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전지하사 칠월 칠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 날 미쳐 대령하되, 장이 십척 오촌이요 광이 삼척 이촌, 만일
그날 마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언파에¹⁰ 선
악 소리 은은하며 오운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거늘 왕이 남천을
향하여 사배하시고 전에 오르사 문무를 모아 의논하실새 좌우
주¹¹ 왈 “팔도에 행관¹²하여 금을 거두어 천명을 받들이 옳을까
하나이다.” 상이 옳게 여기사 즉시 팔도에 발관하여 금을 모으
고 공장¹³을 불러 장광 척수를 맞추어 날 미쳐 만들어 들이니,

상이 삼일 재계하시고 등대하시더니, 이날 진시에 오운이
궐내에 자옥하고 향취가 진동하며 선관이 엄연히 운중에 싸여
오며 남편에 청의 동자가 학을 타고 내려와 요구쇠¹⁴로 걸어올
려 채운에 싸여 남쪽으로 무지개 뻗치고 오운이 각각 동서로
흩어지는지라.

상과 제신이 향안 앞에 나아가 사배하고 전상에 오르사 진
하를 받으시니라.

⁴늘어놓음

⁵향로를 올리는 상

⁶오래 되어

⁷여러 나라

⁸임금의 뜻을 전함

⁹나아가 바침

¹⁰말이 끝나자

¹¹임금에게

올리는 말

¹²관아에 공문을 보냄

¹³수공업 장인

¹⁴갈고리

운치 임금을 속이고 황금 들보를 얻었으나 동국에는 금이 진하였으매 금 들보를 매매함이 가장 수상한지라. 문득 한 계교를 생각하여 들보 머리를 베어가지고 성중에 들어가 팔려 하니 마침 포도장졸이 보고 의심하여 문 왈 “이 금이 어디서 나며 값은 얼마나 하뇨?”

운치 왈 “이 금은 출처 있거니와 값은 오백 금이로라.”

포교가 왈 “그대 집을 이르면 내 명일에 돈을 가지고 가리라.” 하니

운치 왈 “내 집은 송악산 남서부요 성명은 전운치로라.” 한대

포교가 상악한 후에 관가에 이 사연을 고한대 태수 왈 “이 반드시 연고 있으니 이를 자세히 안 후에 이놈을 생금¹⁵하리라.” 하고 우선 은자 오백 냥을 주어 사오라 한대

포교가 즉시 남서부에 가 운치를 보고 은자를 주니 운치 금을 주고 은자를 받거늘 포교가 받아가지고 돌아와 태수께 고한대 태수가 보고 대경 왈 “이 금은 들보머리 분명하니 우선 잡아다가 진위를 알아 장계¹⁶하리라.” 하고 장교 십여 명과 포교 등을 보내었더니 장교 등이 남서부로 가서 운치를 잡아내려할새 운치 음식을 내어 관대¹⁷하고 왈 “너는 수고로이 왔으나 나는 가지 아니하리니 너의 태수의 힘으로는 나를 잡지 못할 것이요, 왕명이 내리면 잡혀가리라.” 하고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거늘 장교 등이 감히 하수치 못하여 돌아가 태수께 이 사연을 고한대 태수가 대경하여 토병 오백을 발하여 운치의 집을 에워싸고

¹⁵산 채로 잡다

¹⁶지방관이 임금에게 보고하는 일

¹⁷대접

잡으로 하며 일변 이 사연으로 장계하니 상이 대로하사 백관을 모아 의논하시고 금부로 나래¹⁸하라 하시니라.

이 때 운치 은자를 얻어 음식을 준비하여 모친께 드리더니 홀연 경성에서 나명¹⁹이 내림을 듣고 정히 계교를 생각할새 차시 금부도사와 포교 등이 토병을 거느려 운치의 동정을 살펴 잡으려 하는지라.

운치 먹소용²⁰을 내어놓고 모친에게 왈 “이 병에 드소서” 하니 부인이 병에 들며 운치 또한 들거늘 도사와 포교 등이 괴이히 여겨 달려들어 병부리를 단단히 막아 들고 주야로 달려 올새 병 속에서 소리쳐 왈 “내 난을 피하여 병 속에 들었거늘 뉘라서 병부리를 막아 숨이 막혀 죽겠으니 막은 것을 빼라.” 하거늘 도사가 청이불문하고 급히 달려 탑전에 이르러 운치를 잡던 수말을 아뢰대

상 왈 “운치 비록 요술 있으나 어찌 병 속에 들리요?” 하시니

운치 병 속에서 소리 질러 왈 “갑갑하오니 병막이를 빼어주소서.” 하거늘

상이 그제야 운치가 병에 든 줄 아시고 조신더러 처치함을 물으신대 제신이 주 왈 “이 놈의 요술이 불측하오니 소로이²¹ 하다가는 잃을까 하나이다.”

상이 전지하사 가마에 기름을 끓이고 소용병²²을 넣으니 병 속에서 외쳐 왈 “신의 집이 빈한하와 주야 떨고 지내옵더니 금일은 더운 데 들어 녹이오니 국은이 망극하여이다.” 하거늘

¹⁸죄인을 붙잡아 오다 ¹⁹체포령 ²⁰먹물 담는 병. ‘먹병’이 옳은 말이다. ²¹소루히. 꼼꼼하지 않게 ²²소용은 작고 길쭉한 병.

아침부터 늦도록 끓여 기름이 다 졸았는지라.

상이 병을 깨치라 하시니 그 병이 여러 조각이 나되 아무 것도 없고 병 조각마다 달음질하여 어전에 나아오며 왈 “소신 전운치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상이 대로하사 그 조각을 모아 기름에 끓이라 하시고 전운치 집을 파가저택하라 하시며 운치를 잡기를 하실새 대신이 주 왈 “이 요적을 잡을 수 없사오니 후환을 덜고저 하실진대 사문에 방을 붙여 운치 자현²³하면 죄를 사하고 관작을 주리라 하사 만일 운치 자현하거든 중임을 맡겨 다시 그림이 있거든 죽임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그 말을 옳게 여기사 즉시 사문에 방을 붙이되

‘전운치가 비록 국가에 득죄하였으나 제 재주를 아껴 특별히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나니 바빠 자현하라.’ 하니라.

5. 전운치의 활약

억울한 살인자를 구해주다

차설, 운치는 모친을 모시고 산중에 들어 은자를 쓰며 구름을 타고 사방으로 임의 왕래하더니

일일은 한 곳에 이른즉 백발노인이 슬피 울거늘 운치 나아가 연고를 물은대 노인 왈 “내 칠십에 한 자식 있더니 애매히¹

²³ 스스로 모습을 드러냄. 자주.

¹ 애매하다는 순 우리말. 한자말인 ‘불분명하다’는 뜻의 애매하다와는 다른 말이다. 억울하게 느껴지다. 현대어의 관형사 ‘애먼’의 어원이다.

살인죄수가 되었기로 설워하노라.”

운치 그 애매함을 자세히 물은대 노인 왈 “우리 동리에 왕가란 사람이 있도 그 계집의 인물이 고우매 내 자식이 소통하여 왕래하더니 그 계집이 음란하여 또 조가와 통간하다가 왕가에게 들켜 두 놈이 싸워 서로 구타할새 내 자식이 마침 갔다가 싸움을 말려 조가를 보내었더니 왕가가 즉시 죽으매 그 사촌이 관가에 고하여 살인을 이루니 조가는 양문기의 문객이라, 결련²이 있어 벗어나고 내 자식이 살인함으로 문서를 만들어 죄수가 되었으매 이같이 설워하노라.”

운치 왈 “진실로 그러할진대 내 마땅히 무사하게 하리라.” 하고 노인을 이별한 후에 몸을 흔들여 일진청풍이 되어 양문기의 집에 가니

차시 양문기가 외당에서 거울을 대하여 얼굴을 보거늘 운치가 또 변하여 왕가가 되어 곁에 섰으니 양문기가 괴이히 여겨 거울을 거두고 돌아본즉 아무것도 없는지라. 생각하되 ‘백주에 요열이 나를 희롱하니 고이하도다’ 하고 다시 거울을 보니 아까 보이던 사람이 서서 고 왈 “나는 금번 조가 손에 죽은 왕생이라, 상세를 그릇 알고 애매한 이가를 가두고 조가를 놓으니 이제 만일 조가 원수를 아니 갚아주면 내 그저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문득 간 데 없거늘 양문기 대경하여 급히 좌기³를 차리고 조가를 잡아 엄문한즉 조가가 애매함으로 발명⁴하 즘음에 왕가가 들어와 고성 왈, “이 불측한 조가 놈아, 무슨 일로 나의

²서로 맺어져 한 통속임
하다: 변명하도의 뜻

³관아의 책임자가 일을 시작함

⁴발명

아내를 겁탈하고 또 나를 죽이니 이는 나의 깊은 원수이어늘 네 어찌 애매한 이가에게 죄를 돌아보내난다?” 하고 문득 간 데 없는지라.

조가가 경황하고 양문기 또한 놀라 조가를 엄형 추문하니 조가가 능히 견디지 못하여 개개 승복하거늘 즉시 이가를 방송⁵ 하고 조가를 행형⁶하니라.

욕심많은 관리를 혼내주다

운치 이가를 구한 후에 구름을 타고 가다가 굽어보니 저자 거리에서 양인이 제두⁷를 붙들고 다투거늘 운치 내려와 연고를 물은즉 일인이 대⁸ 왈 “제두를 쓸 데 있어 먼저 값을 정하였더니 저 사람이 관리 자세하고⁹ 앓아가려 하기로 다투노라.” 운치 관리를 속이려 하여 진언을 염하니 그 제두가 다 입을 벌리고 관리를 물려 하거늘 관리가 놀라 달아나더라.

교만한 청년들을 혼내주다

운치 또 한 곳에 이르러 풍악이 낭자하고 가성이 분운하거늘 운치 좌에 나아가 예하여 왈 “나는 과객이러니 제형의 즐거움을 구경코저 하노라.”

제생이 답례하고 서로 통성명한 후에 운치 눈을 들어 살펴본즉 창기 십여 인이 각각 풍악을 가지고 가사를 희롱하는 곳에

⁵놓아보냄 ⁶형을 집행함 ⁷저두[돼지머리]의 변한 말 ⁸대
답하여 ⁹권력이나 세력을 믿고 세도를 부림

그 중에 소생과 설생이라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 거오하거늘
운치 냉소하고 제생으로 수작하더니 이윽고 주반이 나오거늘
운치 왈 “생이 형의 사랑을 입어 진찬을 맛보니 감사하도다.”

설생 왈 “우리 비록 빈한하나 명기와 진찬이 많으니 형은
처음본 듯하리라.”

운치 소 왈 “그러는 하거니와 오히려 미비한 것이 많도다.”

설생이 “이 무엇이 미비하뇨?”

운치 왈 “우선 서늘한 수박도 없고 새콤한 복숭아와 달콤한
포도도 없으니 무엇이 갖으리오.”

제생이 대소 왈 “형은 무지각이로다. 차시는 계춘이라, 이
실과 등이 어디 있으리오?”

운치 왈 “일처에 온갖 여름이 열렸음을 보았노라.”

설생 왈 “그러하면 형이 이제 사울쏘냐?”

운치 왈 “만일 사오거든 큰 내기를 시행하라.” 하고

종자를 데리고 한 동산에 가본 즉 나무에 복숭아가 달렸거
늘 종자로 하여금 나무에 올라 따서 지게하고, 그 아래 포도가
겨자¹⁰에 드리웠으매 또 따서 지게하고, 들로 내려간즉 수박이
녕쿨에 열렸거늘 이십 개를 따서 지게하고 돌아오니 제인이
대경하여 먹으며 가장 신기히 여기더라.

운치 대취하매 소, 설 양생을 속이고저 하여 양인을 향하여
진언을 염하더니 이윽고 양인 왈 “몸이 심히 무겁고 마음이
심히 번란하니 고이하도다.”

¹⁰가자. 가지가 늘어지지 않도록 받쳐세운 시렁

운치 왈 “형 등이 방자하거니와 창기는 불긴한가¹¹ 하노라.”
양인이 노 왈 “우리가 환자가 아니여든 어찌 창녀를 불긴타
하느뇨?”

운치 소 왈 “양형은 노하지 말고 손을 바지 속에 넣어 만져
보라.” 하니

설생이 이 말을 듣고 손으로 만져보다가 소생더러 왈 “신랑
이 간 데 없고 판판하니 이 어찜 일이뇨?”

소생이 보아지라 하거늘 생이 내여 보이니 과연 아무것도
없으매 소생이 또한 제 하물을 만져본즉 역시 그러한지라.

양인이 대경 왈 “아까 전형이 우리를 조롱하더니 과연 이런
변이 있도다. 장차 어찌하리요?” 하며 또 창기들 중 한 년이 소
문이 간 데 없고 배 위에 구멍이 났으매 어찌할 줄 모르거늘 그
중에 은생이라 하는 자가 가장 총명 유식한지라. 문득 깨달아
운치에게 빌어 왈 “아등이 눈이 어두워 형에게 득죄하였으니
바라건대 형은 용서하라.”

운치 왈 “염려 말면 자연히 도로 나으리라.”

제생과 그 년이 기꺼워하며 만져본즉 의구하매

모두 치하 왈 “신선이 강림하심을 몰라 하마 병인이 될 뻔하
였나이다.” 하더라.

고직 장계창

운치 구름을 타고 동다히¹²로 가다가 보니 한 곳에서 수삼
인이 의논 왈 “장 고직은 착하고 효행이 있는 사람이라 만일

¹¹필요치 아니하다

¹²동쪽

애매히 죽으면 아깝고 참혹하다.” 하며 차탄하거늘

운치 내려와 물은대 기인¹³이 대 왈 “호조 고직인 장계창이란 사람은 어질고 효행있고 사람 구제하기를 좋아하더니 제 문서 잘못된 탓으로 제 쓰지 아니한 은자 이전 냥을 무변지매¹⁴, 그 죄로 행형한다 하기로 차탄하노라.” 하니 운치 불쌍히 여겨 다시 구름을 타고 행형하는 곳으로 가 기다리더니 과연 한 소년이 수레에 달려 오고 그 뒤에 젊은 계집이 울며 따르느니라. 운치 중인더러 물은즉 과연 장계창이어늘 동정을 살피더니 옥줄이 죄인을 내여놓고 때를 외치느니라.

운치 바람이 되어 장계창의 부처를 거두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 감형관이 대경하여 이대로 상달한대 상이 놀라시고 조정이 의혹하더라.

운치 집에 돌아와 장계창의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풀어넣은즉 이윽고 깨어 아무런 줄 모르매 운치 전후 수말을 이르고 모친께 이 사연을 고하니라.

신기한 족자

운치 또 구름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통곡함을 보고 연유를 물은대 기인이 대 왈 “나는 안(한)재경이러니 부상¹⁵을 당하여 장사할 수 없고 칠십 노모를 봉양할 길 없어 설위하노라” 하니 운치 긍측히 여겨 소매에서 한 족자를 내어주며 왈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직아!’ 불러 대답하는 자 있거든 은자 백

¹³그 사람

¹⁴값지 못하므로

¹⁵부친상

냥을 내라 하면 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지내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 하여 노친을 봉양하되, 만일 더 내라 하면 큰일이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한대

기인이 반신반의하며 운치의 거주 성명을 묻고 집에 돌아와 작자를 퍼본즉 아무것도 없고 큰 집 하나를 그리고 그 집앞에 동자를 그려 열쇠를 채웠거늘 기인이 시험하여 ‘고직아!’ 부른 즉 과연 그림 속에서 대답하고 나오는지라. 기인이 놀라며 은자 백 냥을 들이라 하니 동자가 은자 백 냥을 내어 앞에 놓거늘 재경이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 고직을 불러 은자 한 냥씩 들이라 하여 일용을 하더니

일일은 쓸 데 있어 헤오되, 은자 백 냥을 꾸어 쓰면 무슨 관계 있으리요, 하고 고직을 불러 왈 ‘쓸 데 있어 은자 백 냥을 먼저 꾸어 쓰고저 하노라’ 한대 고직이 허치 아니하거늘 재경이 재삼 달래며 이른즉 고직이 부답하고 들어가 문을 여는지라. 재경이 따라 들어가 은자 백 냥을 가지고 나오려하니 고문이 닫혔거늘 일변 놀라 고직을 부르되 대답이 없는지라. 재경이 대로하여 발로 문을 박차더니

차시 호판이 좌기할새 고직이 아뢰되, “고중에서 사람 소리 나오니 가장 고이하더이다.” 하거늘 호판이 듣고 외괴하여 하속을 모으고 문을 여니 한 놈이 은자를 가지고 섰거늘 하속 등이 대경하여 문 왈 “네 어떤 도적이관대 이곳에 들어왔느냐?” 재경이 노 왈 “너희는 어떤 사람이관대 남의 고 중에 들어와 이렇듯 하나냐?” 하거늘 하속 등이 재경을 결박하고 호판께 아뢰대, 호판이 재경을 계하에 꿇리고 꾸짖으니 한가가 그제야

살펴본즉 제 집이 아니요 곧 관가라. 대경하여 왈 “내 어찌 이곳에 왔는고? 이 꿈인가 생신가” 하며 아무런 줄 모르거늘

호판 왈 “네 고 중에 들어와 은을 가져가려 하는 죄는 죽음직 하거니와 네 당유를 다 아뢰라.” 하니 한가가 전후곡절을 다 고한대 호판이 그 족자 출처를 물으니 한가가 전운치의 사연을 아뢴대

호판 왈 “전운치를 어느 때에 보았는다?”

한가가 왈 “본 지 사오 삭이요, 그 집은 남서부라 하더이다.” 하거늘

호판이 이에 한가를 가두고 인하여 유고¹⁶를 번고¹⁷한즉, 은자는 다 없고 청개구리 가득하고 또 다른 고를 본즉 돈은 없고 누른 뱀이 가득 서렸거늘 호판이 괴이히 여겨 그 연유를 상달한대 상이 대경하사 제신을 모아 의논하실새

각 참관이 주하되 “창고의 쌀이 변하여 버러지 짐승이 되었나이다” 하며

또 각 영문이 주하되 “고 중의 군기가 다 없고 나뭇가지만 쌓였나이다” 하며

차지¹⁸내관이 주하되 “해물이 변하여 생선이 되었나이다” 하며

궁녀 주하되 “궁녀 등의 족두리 변하여 금가마귀 되어 날아가고 내전에 큰 벌이 들어와 궁인을 해하나이다” 하거늘

상이 대경하사 궁노수를 발하여 내전에 들어가본즉 궁녀마다

¹⁶남은 창고

¹⁷창고를 조사

¹⁸궁방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큰 범을 탔으매 궁노를 발하지 못하고 이 사연을 상께 주한대, 상이 진노하사 궁녀 아울러 쏘라 하시니 궁노수가 들어가 일시에 쏘려 한즉 흑운이 일어나며 범 탄 궁녀가 다 구름에 싸여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상 왈 “이는 다 전운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국가가 태평하리라.” 하시더니

호판이 주하되 “가둔 도적이 또한 전운치 동류니 급히 죽여지이다.” 하거늘 상이 의윤하사 한재경을 행형하려할새, 문득 광풍이 대작하며 재경이 간 데 없으니 이는 운치가 구함이라.

6. 전운치의 벼슬살이

자현하다

차설, 운치 두루 다니다가 사문의 방 붙인 것을 보고 냉소하며 꺾하에 나아가 외쳐 왈 “소신 전운치 자현하나이다.” 하거늘

정원이 주한대 상이 헤아리시되 ‘이놈 환술이 비상하여 도처 작난하니 차라리 벼슬을 주어 달래고 만일 다시 작변하거든 죽이리라.’ 하시고, 입시하라 하시니 운치 들어와 복지하거늘, 상 왈 “네 죄상을 아난다?”

운치 부복 사죄 왈 “신의 죄 만사무척이오니 무슨 말씀을 아뢰리이까?”

상 왈 “네 재주를 아껴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나니 너는 모

름지기 충성을 다하라.” 하시고 선전관 사복내승¹을 제수하시니 운치 사은하고 물러와 사처를 정하고 궐내에 입직할새 선전관들이 조사 보채기를 심히 하여 퇴치기를 차례로 하거늘 운치 가만히 망주석을 뺏아다가 퇴를 맞히니 선전관의 퇴 잡은 손바닥이 맞추이어 아파서 능히 치지 못하매 이후는 퇴치기를 그치니라.

백사정 허참례

이러구러 수월이 되니 선전관들이 하인을 분부하여 허참²하기를 재촉하니 운치 왈 “명일 평명³에 백사정으로 제진⁴하시게 하라.” 하니라.

익일에 모든 선전관들이 준총을 타고 나아오며 살펴본즉 푸른 차일은 반공에 솟았고 채석 포진은 좌우에 벌렸는데 맑은 풍악이며 풍비한 음식이 가장 변화하더라.

제인이 차례로 좌정한 후에 상을 들어 잔을 날려 반취하매 운치 왈 “금일 청중이 모두 즐길새 무변의 놀음⁵이 가장 무미하니 원컨대 전일 친하던 계집을 데려오미 어떠하뇨?”

제인이 취중에 가장 기꺼워 왈 “전 조사의 이런 호기 있는 줄 알지 못하였나니 그대는 재주대로 하라.”

운치 즉시 하인을 데리고 나는듯이 남문으로 들어가거늘 제

¹내승은 고려 때는 궁중의 가마를 맡은 관아로 사복시와 별도로 있었으나 조선 때는 내사복시에 속하여 말과 수레를 맡아보았다. ²신고식. 새로

부임한 관원이 선임자들에게 음식 등을 대접하는 일. ³해뜰 무렵 ⁴모두 나오게 ⁵옆자리가 빈, 여자가 없는

인 왈 “전 조사가 항시 이렇듯 기특하니 족히 큰 도적이라도 감당하리라.” 하고 칭찬하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윤치가 무수한 계집을 몰아와 장⁶ 밖에 두고 다시 큰 상을 들여 즐길새 윤치 나아와 왈 “청말⁷이 청중 분부를 들어 계집을 데려왔으니 각각 하나씩 앞에 두어 흥을 돋움이 어떠하뇨?”

제인이 다 좋다 하거늘, 윤치 먼저 한 계집을 불러 행수 앞에 앉히며 왈 “너는 떠나지 말고 착실히 수청하라.” 하고 차례로 하나씩 앉히니 이는 다 선전관의 아내라. 모든 선전관이 서로 알까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심중에 대로하여 문득 상을 물리고 각각 말을 내어 타고 급급히 돌아가니 하인 등은 이 뜻을 모르고 다 의괴하더라.

선전관들이 각 집으로 돌아오니 혹 급보를 전하러 오는 이도 있으며 혹 청심환을 구하러 약계로 가는 이도 있으며 혹 의원을 청하여 사관을 주는 이도 있으며 혹 발상 통곡하는 이도 있어 집집이 창황분주하매 선전이 연고를 물은 즉 다 부인 상사라.

김 선전은 집에 돌아온즉 시비 고 왈 “부인이 아까 의복을 마르시다가 홀연 별세하였나이다.” 하거늘 김 선전이 대로 왈 “이것이 백사정 허참 놀음의 창기 되어 전가 놈을 부동하여 와서 만좌 중에 욕을 보이니 어찌 사족 부녀의 소행이 여차하리요? 나는 벼슬도 못하고 문호를 망하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하리요.” 하더니 문득 시비 급보 왈 부인이 깨어난다 하거늘 선전이 노를 그치고 급히 내당으로 들어가니

⁶담 ⁷관청의 신참내기

부인이 일어나 앉으며 왈 “첩이 아까 잠깐 졸더니 흥포 입은 자가 불문시비하고 첩을 잡아내어 황의 입은 하인이 달려들어 장옷을 씌우고 말을 태워 어느 곳으로 가본즉 나같은 부인이 무수하여 아무리 할 줄 몰라하더니 전 선전이란 놈이 나를 끌어내어 상공 앞에 앉히며 착실히 수청하라 하고 차례로 하나씩 앉힌 후에 선전관들이 열좌하여 상을 받았다가 별안간에 상공이 노색을 띠고 일어서서 말에 올라 돌아가매 다른 사람들이 안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노기 발발하여 다 흠어지니 첩도 아까 계집들과 함께 몰리어 방황하다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집안 사람들이 나를 죽은 줄로 알고 발상 통곡하니 그런 변고가 어디 있으리요?” 하거늘 김 선전이 이 말을 듣고 어이없어하며

모든 선전관이 불승통분 왈 “대역부도 전운치 놈이 입조하여 우리 등을 욕을 보이니 어느 때 이놈을 죽여 이 한을 설치하리요?” 하더라.

전운치가 모든 선전관을 속이고 돌아와서 헤아리되, ‘내 나라에 죽을 죄를 면하고 도리어 벼슬을 받으니 천은이 망극한지라. 마땅히 회과천선하여 충성을 극진히 하리라’ 하고 ****하며 직사를 다스리니 사복마를 신칙⁸하여 말이 살찌고 병이 없으니 조정이 기특히 여기더라.

도적 염준을 잡다

각설, 가달산에 염준이라 하는 자가 있으되 용맹이 과인하고 무예 출중한지라. 강도 수천을 모아 산채를 이루고 촌가를

⁸단단히 경계함

노략하며 각읍을 쳐 군기 전량을 탈취하며 사람을 살해하니
각읍이 소요한지라.

감사가 이 연유를 장계한대, 상이 크게 근심하사 제신을 모아
의론 왈, “도적이 이렇듯 강성하니 뉘 능히 도적을 소멸하리
요?” 하시되 감히 대답할 자가 없더니, 문득 일인이 출반 주
왈 “신이 천은을 입사옵이 망극하온지라 비록 무재하오나 엄
준의 머리를 베어 전하의 근심을 덜까 하나이다.” 하거늘 상이
보시니 이는 전운치라. 대희하사 제신더러 문 왈 “경 등 소견
에는 어떠하뇨?” 제신이 다 마땅함을 주한대, 상이 왈 “군마를
얼마나 조발할꼬?” 운치 대 왈 “적세 크다 하오니 신이 홀로
나아가 적세를 탐지하온 후에 동병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상
이 윤허하시고 인검⁹을 주사 임의 호령하라 하시니 운치 사은
퇴조하여

익일에 **새 차야¹⁰에 구름을 타고 남서부에 가서 모친을
뵈옵고 왕명을 받자와 적세를 탐지하러 가는 연유를 고하니
부인 왈 “적세 허실을 모르고 소루히 들어감이 만분 위태하니
극진히 조심하여 군친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 하거늘, 운치
수명하고 경사¹¹로 돌아와

날이 새매 포교 등 십여 인을 데리고 발행하여 감영에 이르러
포교 등을 머물러두고 홀로 인검을 가지고 몸을 흔들어 변하여
수리 되어 가달산으로 들어가보니

염준이 엄연히 일산을 받고 백총마를 탔으며 채의홍상한

⁹임금이 병마를 통솔하는 장수에게 주는 검으로 명령을 어기는 자를 바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¹⁰이날 밤 ¹¹수도. 서울.

미녀를 좌우에 세우고 종자 백여 명을 거느려 산행¹² 하더니 문득 염준이 분부하되 “오늘은 각도에 갇던 장사 등이 돌아올 것이니 명일에 큰 소를 십필만 잡고 잔치할 기구를 차리라.” 하는지라. 운치 염준을 살펴본즉 기골이 장대하고 낮빛이 붉고 눈이 방울같고 수염이 바늘을 묶어세운 듯하니 짐짓 일세의 호걸이거늘

운치 문득 한 계교를 생각하고 나뭇잎을 훑어 신병을 만들어 창검을 들리고 기치를 벌려 진을 굳게 치고 운치 머리에 상봉 투구를 쓰고 몸에 홍금 전포를 입었으며 인검을 들고 오추마를 타고 동구를 깨쳐 들어가보니 성문을 굳게 닫았거늘

운치 진언을 염한즉 성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말을 몰아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보니 빛난 집이 두루 벌리어 있고 물색이 십분 변화하더라.

운치 사면을 둘러본 후에 변신하여 수리 되어 후원에 들어가 본즉 염준이 황금 교의에 앉고 제장을 좌우에 앉히고 그 뒤에 전각에서 미녀 수백 인이 열좌하여 잔을 받거늘

운치 그 동정을 보고자하여 진언을 염하니 무수한 수리가 하늘로 덮어내려와 제인의 앞에 놓인 상을 다 거두어가지고 중천에 떠 올라가며 광풍이 대작하여 모래 날리며 돌이 달음질하니 좌중이 대경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바람에 불리어 쓰러지며 차일과 ** 물이 다 날아 공중에 오르니 염준은 낮이 없어 언덕 위 나무등걸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모든 군사는 떡과 고기를 들고 표풍¹³하여 뒹굴뒹굴 구르며 혹 똥물도 토하는지

¹²사냥

¹³바람결에 떠 흘러감

라.

사시부터 오시까지 분분하다가 염준과 제 장졸이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문득 백설이 담아 붓는듯이 내려 순식간에 십여장이 쌓이매 눈을 뜨지 못하여 어찌할 줄 몰라 황황하더니 문득 바람이 그치며 눈 물이 한 점도 없는지라. 염준이 대청에 나와 솔발¹⁴을 흔들며 장졸을 모아 괴이한 재변에 서로 놀라 하더니 문득 문졸¹⁵이 보¹⁶하되 일원 대장이 군사를 몰아 동문을 깨치고 들어온다 하거늘 염준이 대경하여 군사를 재촉하여 기세를 정제하고 진전에 정창¹⁷ 출마하니

운치 대호 왈 “너는 어떤 놈이관대 강악을 믿고 산중에 둔취하여 군현을 침노하며 백성을 살해하는다? 너같은 쥐무리를 다 잡아 국법을 정히 하리니 네 생명을 아끼거든 일찍 항복하여 천명을 순수하라.”

염준이 대로 왈 “내 응현순인¹⁸하여 장차 무도한 임금을 없이하고 도탄에 든 백성을 건지고자 하거늘 네 어찌 감히 나를 항거하난다?”

말을 마치매 내달아 양마가 교봉¹⁹하여 수십여 합에 이르러 염준의 창날은 일광을 가리우고 운치의 검광은 반공에 무지개 되었으니 짐짓 양호가 공산에서 밥을 다투며 쌍룡이 백해에서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이라. 양장의 정신이 점점 씩씩하여 승부를 미결하여 날이 이미 저물매 양진이 쟁을 쳐 군을 거두니라.

¹⁴낚시로 만든 큰 방울 ¹⁵문을 지키는 병사 ¹⁶알림 ¹⁷창을 겨누어 들 ¹⁸응천순인이 바른 말. 하늘의 뜻에 응하여 백성의 뜻을 따름.

¹⁹두 장수가 교전함

염준이 진에 돌아오매 제장이 치하 왈 “작일 괴변을 만나 마음이 날랐으되 금일에 범같은 장수를 능히 대적하니 하늘이 도우심이어니와 적장의 용맹이 또한 절륜하니 장군은 경적치²⁰ 말으소서.” 하거늘

염준이 소 왈 “적장이 비록 용맹하나 내 어찌 저를 두리리오? 명일은 일단코 운치를 잡고 바로 도성으로 향하리라.” 하고

익일에 진문을 열고 염준이 출발 대호 왈 “전운치는 빨리 나와 나의 칼을 받으라. 금일은 반드시 승부를 결하리라.” 하며 좌우충돌하거늘 운치 대로하여 말을 내몰아 칼을 찔쳐서 바로 염준을 취할새 삼십여 합에 이르되 염준의 창법이 일호 차착²¹이 없는지라. 운치 헤아리되 ‘무예로는 염준을 당치 못하리라’ 하고 몸을 흔들며 정몸은 공중에 오르고 거짓몸은 염준을 대적하게 하고 크게 외쳐 왈 “내 평생에 살심을 아니하더니 네 이제 천명을 거역하매 내 마지못하여 너를 죽이나니 나를 원치 말라.” 하고 칼을 들어 염준을 치려 하다가, 다시 생각하되 ‘내 살생하기를 어찌 졸연히 하리요. 마땅히 이놈을 생금하리라.’ 하고 공중에 올라 칼을 번득여 급히 외쳐 왈 “내 재주를 보라.” 하니 염준이 대경하여 하늘을 우러러본즉 한 떼의 구름 속에 번개 일어나니 이는 번개가 아니요 운치의 검광이라. 대경실색하여 적진으로 돌아가려 하더니 앞에 운치 칼을 들어 길을 막으며 뒤에 또 운치 따르며 좌우에 또한 운치 에워들어오며 머리 위의 운치 구름을 타고 칼춤 추어 염준의 머리를 범하는지

²⁰적을 가벼이 여김

²¹어그러져 앞뒤가 맞지 아니함

라. 염준이 정신이 어질하여 마하에²² 떨어지거늘 운치 구름을 내려와 거짓 운치로 군사를 호령하여 염준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보내고 운치는 말을 달려 적진을 충살²³하니 적진 장졸이 염준이 사로잡힘을 보고 손을 묶어 항복하거늘

운치 적진 장졸을 계하에 꿰리고 효유하여 왈 “여등이 반적을 도와 천명을 항거하니 그 죄 만사무석이로되 내 특별히 사하나니 여등은 고향에 돌아가 농업에 힘써 양민이 되게 하라.”

적장 등이 고두재배하고 각각 헤어지매 옛날 장자방이 계명산 추야월에 이항가 한 곡조를 슬피 불러 강동 자제 고향을 생각하여 흠어짐과 같더라.²⁴

운치 염준의 내실에 들어가 미녀 수백을 다 놓아 각각 제 집으로 돌아보내고 각진으로 돌아와 장대에 앉고 좌우를 명하여 염준을 대하에 꿰리고 여성²⁵ 대매 왈 “네 재주와 용맹이 있을진대 마땅히 갈충사군하여 영충이 대대로 미침이 옳거늘 감히 역심을 품어 국가를 소요케하니 그 죄를 어찌 요대²⁶하리요?” 하고 무사를 명하여 원문²⁷ 밖에 참하라 하니 염준이 슬피 빌어 왈 “소장의 죄상은 이삼족이 마땅하오나 장군은 호생지덕을 드리우시면 마땅히 허물을 고쳐 장군을 좇을까 하나이다.”

운치 왈 “네 진실로 개과천선할진대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하고

무사를 명하여 맨 것을 끄르고 좋은 말로 위로하여 제 고향으로 돌아보내고 신병을 파한 후에 첩서를 조정에 올리고 즉

²²말 아래 ²³들이쳐 찢려죽임 ²⁴사면초가의 고사임 ²⁵성이
 나서 큰소리를 지름 ²⁶너그러이 용서함 ²⁷관아의 문

시 발행하여 궐하에 나아가 숙배하온대 상이 인견하사 파적인 수말을 물으시니 운치 자초지종을 자세히 아뢴대 상이 무수히 칭찬하시고 상사²⁸를 많이 하시니라.

선전관들을 혼내주다.

차설, 운치가 경성에 돌아온 후에 조정이 다 와서 운치를 보고 성공함을 치하하되 홀로 선전관이 일인도 와보는 이 없으니 이는 백사정 허참시의 욕보이던 혐의러라.

운치가 다시 속이고저 하더니 일일은 사경 때에 월색이 조요하여 벽공에 일점 운²⁹이 없는지라. 운치 오운을 타고 황건역사와 이매망량³⁰ 등을 다 모으고 신장을 불러 분부하되 “빨리가 모든 선전관을 잡아오라.” 하니 신장이 청령³¹하고 가더니 이윽고 다 잡아왔거늘 운치 구름 교의에 앉고 좌우에 신장 등을 벌려 세우고 등축이 휘황한데 운치가 여성 왈 “황건역사는 어디 있나뇨? 모든 죄인을 잡아들이라.” 하니 역사 등이 일시에 청령하고 각각 하나씩 나입하는지라. 선전관들이 황겁하여 땅에 엎드려 치밀어본즉 귀왕과 신장이 좌우에 나열하여 위의를 심히 엄숙한 곳에 운치 고성 대매 왈 “내 전일에 희롱코저 하여 그대의 부인을 잠깐 욕되게 하였으나 어찌 그렇듯 함험³²하여 나를 소대³³함이 심하뇨? 내 일찌기 여등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보내고저 하되 내 밤이면 천상벼슬에 다사하고 낮이면 국가소임에 골몰하기로 지금 천연³⁴하였거니와 이제는 마지못하여

28 상을 줌 29 구름 30 온갖 도깨비 31 명령을 듣고 32 혐의를 품음 33 소홀히 대함 34 미루어둠

너희 등을 풍도옥³⁵에 보내어 고행을 겪어 사람을 만모³⁶하던 죄를 속하게 하노라.” 하고 염왕에게 부치되 “이 죄인을 지옥에 가두어 팔만 겁을 지나거든 업축이³⁷를 만들어 보내라.” 하거늘

모든 선전관이 이 말을 들으매 정신이 더욱 떨리고 혼백이 몸에 붙지 아니하는지라. 슬피 울어 왈 “우리 등이 암매하여 죄를 범하였으니 바라건대 동료지의를 생각하여 죄를 용서하소서.” 하거늘 운치 침음 양구에 왈 “내 여등을 풍도에 보내어 고행을 겪게 할 것이로되 전일 안면을 고렘하여 아직 십분 안서³⁸하거니와 일후를 보아 처치하리라.” 하며 몰아 내치라 하니 모든 선전관이 문득 깨달으매 남가일몽³⁹이라. 일신에 땀이 흘러 금침이 젖었고 정신이 아득한지라.

그 후에 모든 선전관이 청중에 모여 그 날 몽사를 이른즉 모두 여출일구어늘 차후로 운치를 대접함이 각별 극진하더라.

호조 창고가 복구되다.

차설, 일일은 상이 호판더러 문 왈 “전일 호조의 은과 돈이 다 변하였다 하더니 이제는 어떠하더뇨?”

호판이 대 왈 “전일과 그대로 그저 있나이다.” 한대

상이 가장 근심하시거늘 운치 출반 주 왈 “원컨대 신이 각처 창고의 재변을 자세히 탐지하와 탐전에 아뢰고저 하나이다.”

상이 의윤⁴⁰하신대 운치 즉시 호판과 한가지로⁴¹ 호조에 나

³⁵지옥. 도가적 표현이다. ³⁶거만한 태도로 남을 업신여김 ³⁷업축. 전생의 죄로 이승에 태어난 짐승 ³⁸잠시 보류함 ³⁹당나라 순우분의 고사. 여기서는 그냥 꿈 ⁴⁰신하의 청을 허락함 ⁴¹함께

아가 고 문을 열고 본즉 은이 예대로 있거늘 호판이 대경 왈 “내 어제 번고할 제 청개구리만 있더니 밤 사이로 도로 은이 되었으니 가장 고이하도다.” 하고 외고를 열어보니 또한 다 의구⁴² 하였고 각 영문의 군기 다 여전하니 모두 놀라고 신기히 여기며 운치 살펴본 후 탑전에 그대로 상달하온대 상이 기꺼워하시며 운치의 요술로 작변함을 짐작하시더라.

누명을 쓰고 임금을 하직하다.

이 때 간의대부가 여쭙오되, “호서 땅에 사오 인이 둔취⁴³ 하여 역모를 의논한다 하와 고자⁴⁴가 문서를 가지고 신에게로 왔삽기에 고자를 가두고 아뢰나이다.” 하거늘 상이 왈 “과인이 박덕하여 도적이 붕기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오.” 하시고 금부와 포청으로 잡으라 하사 즉시 잡아왔거늘

상이 친문하실새 그 중 한 놈이 아뢰되, “전운치를 임금으로 삼아 백성을 진정코저 하옵더니 이제 일이 발각하오매 만사 무석이로소이다.” 할새, 차시 운치 문사 낭청⁴⁵으로 시위⁴⁶에 섰다가 불의에 역적 초사⁴⁷에 오른지라.

상이 대로하사 왈 “전운치 필경 모역할 줄 알았더니 이제 초사에 났도다.” 하시고 빨리 운치를 잡아 내려 형구를 베풀고 하고 왈 “내 전일에 네 죄를 사하고 벼슬을 주었더니 국가의 은혜를 감복치 아니하고 이제 역률을 범하였으니 발명 말고 죽

⁴²예전과 같음
당하관 실무관리.

⁴³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임
⁴⁶임금을 모시어 호위함

⁴⁴고변자
⁴⁷공초 문서

⁴⁵낭관.

으라.” 하시며 나졸을 엄교하사 한 매에 죽이라 하시니 나졸이 힘을 다하여 치려하되 팔이 아파 매를 들지 못하더라.

운치 아뢰되, “신의 전후 죄상은 죽어 마땅하오나 금일 역률은 천만 애매하여이다.” 하며 심중에 헤아리되 ‘이 필연 나를 모해하는 이 있어 이리 함이니 어찌 애답지 아니하리요’ 하고 다시 주하되 “신이 이제 죽을진대 평생의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올지라. 복원, 성상은 신의 원을 풀게 하소서.” 하거늘 상이 헤오시되 ‘이놈의 재주가 가장 기이하니 시험하리라’ 하시고 하교 왈 “네 무슨 재주가 있나뇨?”

운치 왈 “신이 그림을 잘 하오매 나무를 그리면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걸어가웁고 산을 그리면 산에서 초목이 생하웁기로 세상에서 명화라 하옵나니, 이 그림을 세상에 전치 못하고 죽사오면 원혼일 되리로소이다.”

상이 생각하시되 ‘이놈이 죽어 원혼이 되면 괴로운 일 있리라’ 하시고 즉시 맨 것을 끌러놓고 필묵지를 주신대,

운치 붓을 들어 산수를 그릴새 만학천봉에 만장폭포가 산상으로부터 내리게 하고 시내가에 버들가지 늘어지게 하고 그 아래 안장 지은 나귀를 그린 후에 붓을 던지고 사배하온대, 상 왈 “너는 죽을 죄인이거늘 사배함을 무슨 뜻인고?”

운치 주 왈 “신이 이제 천안을 하직하고 산중으로 들어가나이다.” 하고 나귀 등에 올라 산중으로 들어가더니 문득 간 데 없는지라.

상이 대로 왈 “내 이놈에게 속았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요?” 하시고 좌우로 하여금 그림을 소화하라 하시며 그 죄인

등을 다시 엄문하사 지만⁴⁸을 받은 후에 내어 처참하라 하시고
운치에게 속음을 못내 통한하사 각도에 행관하시되 운치를 잡
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천금 상의 벼슬을 주리라 하시다.

7. 여러 전운치를 잡아들이다

호색하는 중

차설, 운치 요술을 행하여 임금을 속이고 죽을 액을 벗어나
집에 돌아와 모친께 전후 사연을 고한대, 부인이 대경 왈 “차
후는 몸을 감추어 다시 조정에 나아가지 말라. 네가 임금을 속
이니 그 죄 천지간에 용납지 못할지라. 네 사후에 하면목으로
조상을 뵈려 하느뇨?” 하며 일장 대책하거늘

운치 모친 경계를 들은 후는 산중에 있어 고요히 글을 힘쓰며
혹 나귀를 타고 물색을 구경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본즉 젊은 중이 고운 계집을 데리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니 이윽고 그 여자가 나무에 올라 자향¹하려 하는지
라. 운치 마침 촌가에서 술 사먹고 산상으로 올라오다가 지경을
보고 놀라 급히 나아가 맨 것을 끄르며 수족을 주물러 회생하매
연고를 물은대 기녀²가 왈 “아까 지나던 화상은 가군 생시 친하
던 중놈이라. 첩이 일찍 과거³하여 수절하더니 금일은 가군의

⁴⁸자백.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할 때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

¹스스로 떨어짐. 자결

²그 여자

³과부로 지냄

돌아간 날이라. 그 중놈이 와서 달래어 이르되 제 절에 가서 재를 올리자 하고 한가지로 감을 간청하기로 첩이 신지무의⁴ 하고 따라오더니, 그놈이 불촉지심을 내어 이곳에 와서 나를 겁촉⁵하여 횡절하매 살아 쓸 데 없기로 자결코저 하노라.”

운치 그 여자를 위로하여 제 집으로 보내고 다시 산에 올라 가니 큰 암자가 있고 어제 보던 중놈이 그 곳에 있는지라.

운치가 가만히 진언을 염하여 기운을 내어 부니 그 중이 변하여 전운치 되거늘 그 절에 머물러두고 동정을 살피더니 마침 포도기찰이 왔다가 그 중놈을 보고 전운치만 여겨 태수께 급히 고한대 태수가 대희하여 토병을 발하여 그 중놈을 잡아 결박하여 경사로 올린대, 상이 즉시 친국을 배설하시더니 정원이 주하되 “각도 각읍에서 전운치를 잡아들인 것이 삼백육십일 명이오니 이는 반드시 전운치의 요술인가 하나이다.” 상이 진노하사 처치하심을 생각지 못하실새

도승지 왕연희

도승지 왕연희가 주 왈 “전운치 환술이 불촉하오니 금번도 잃을 염려 있사오매 진가를 불문하고 모두 버혀지이다.”⁶ 하거늘 상이 옳게 여기사 십자각에 전좌하시고 모든 전운치를 잡아들여 차례로 베일새 그 중 하나가 나아와 아뢰되 “신은 전운치 아니요 도승지 왕연희로소이다.” 하거늘 상이 보신즉 분명 왕연희라. 좌우더러 물으신대 좌위 대 왈 “이는 전운치로소이다.”

⁴ 그를 믿어 아무런 의심없음
어버립시다.

⁵ 겁박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음

⁶ 베

상이 탄 왈 “국운이 불행하여 요열이 이같이 작난하니 종사를 어찌 보전하리요? 적신 하나를 죽이려하매 무죄한 조신과 애매한 백성을 많이 죽이리로다.” 하시고 친국을 파하시니라.

운치 구름 속에서 요술을 행하고 몸을 변하여 왕연희 되어 꺾문을 나오니 하인 등이 인마를 대령하였다가 모시어 왕부로 돌아가 바로 내당으로 들어가 부인과 수작하되 부인과 가내인은 전혀 모르더니

이 때에 왕공이 꺾내에서 나와 하인을 찾은즉 하나도 없는지라. 고이히 여겨 동관의 인마를 빌어 타고 집에 돌아오니 하인들이 문전에 있으며 왕공이 일변 대로하여 곡절을 물은즉 하인 등 왈 “소인 등이 아까 상공을 뵈셔왔삽거늘 또 어찌 상공이 계시리요?” 하며 면면 상고하거늘, 왕공이 의괴하여 내당으로 들어가니 시비 등이 손뻑치며 왈 “이 어쩐 일이뇨, 아까 우리 상공이 나와 계시거늘 이 어쩐 일이뇨?” 하며 지껄이느니라.

왕공이 아무것도 모르고 침실로 들어가니 과연 한 왕공이 부인과 말씀을 낭자히 하거늘 왕공이 대로 대매 왈 “너는 어떤 놈이관대 감히 사부가에 들어와 나의 부인과 말을 수작하는다?” 하고 노복을 호령하여 빨리 결박하라 하니

운치 왈 “너는 우옌 놈이관대 내 얼굴이 되어 내당에 들어와 나의 부인을 겁탈하려 하니 이런 변고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하인을 호령하여 빨리 몰아 내치라 한대 하인들이 거동을 보매 가위 수지오지자옹⁷이라. 어찌할 줄 모르거늘

⁷시경 소아 정월에 나오는 말. 까마귀의 암수를 누가 알리오?

운치 도리어 호령 왈 “내 전일에 들은즉 요물이 인형⁸을 오래 쓰지 못한다” 하고 왕공을 향하여 물을 뿜고 주사를 내어 바르니 왕공이 변하여 구미호가 되니 노복 등이 그제야 칼과 몽치를 들고 달려들어 짓쳐 죽이려 하거늘, 운치가 말려 왈 “이 일이 큰 변고이니 나라에 고하여 처치할 것이매 아직 단단히 동여 방중에 가두고 잘 지키라.” 하니 노복 등이 청령하고 왕공을 동여 가두니라.

왕공이 불의지변을 만나매 말을 하고저 한즉 여우의 소리로 나고 정신이 아득하여 다만 눈물만 흘리고 누웠으니 가위 짐승의 모양이요 사람의 속이라.

운치 생각하되, 수삼일 속이면 살지 못하리라 하고 차야 사경에 왕공에게 가보고 이르되, “네 나와 더불어 원수가 없거늘 부디 나를 죽여 나라에 요공⁹코저 하매, 내가 먼저 너를 죽여 한을 씻고저 하되, 내 평생에 살생을 아니하기로 너를 사하나니 너는 모름지기 다시 이런 행실을 말라.” 하고 진언을 엄하니 도로 왕연희가 된지라.

왕공이 그제야 운치의 요술로 그리한 줄 알고 황겁하여 왈 “전공의 높은 재주를 모르고 그릇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무수 사례하거늘, 운치 다시 당부 왈 “구하고 가나니 내가 돌아간 후에 집안이 소동하리니 여차여차하라.” 하고 남서부로 가니라.

왕공이 즉시 노복을 불러 왈 “그 요괴를 자세히 보라” 하니 노복 등이 방에 가본즉 요괴가 간 데 없는지라. 모두 놀라 그대

⁸사람 허물

⁹자기 공을 스스로 드러내어 남이 알아주기를 바람

로 고한대, 왕공이 양노 왈 “여등이 지키기를 잘못하여 잃었도다.” 하고 무수히 꾸짖어 물리치니라.

운치가 다시 암자에 가본즉 그 화상이 그저 운치의 모양이 되었거늘, 운치 그 화상을 향하여 물을 뿜고 진언을 염하니 도로 본상이 된지라. 운치가 대책¹⁰ 왈 “네가 중생이 되어 불도를 숭상할 것이어늘, 수절하는 계집을 유인하여 겁촉훼절하여 자처지경을 미치게 하니 그 죄가 만사유경¹¹이라. 너를 전운치의 얼굴이 되어 죽게 하였더니 차마 살생을 못하여 너를 살려 돌아와 다시 네 본상을 내어주나니, 차후는 그런 행실을 행치 말라.” 하고

8. 족자 속의 미녀와 뱀이 된 민씨

집으로 돌아오다가 한 곳에 다달아 본즉 여러 소년이 족자를 가지고 다투어 보며 칭찬 왈 “이 족자 그림이 천하 명화라.” 하거늘, 운치 나아가 보니 곧 미인도라. 그 미인이 아이를 안아 희롱하는 형상이로되 입으로 말하는 듯 눈으로 보는 듯하여 생기 유동하거늘 운치가 한 계교를 생각하고 짐짓 왈 “이 그림이 무엇이 명화관대 그대 등이 어찌 과히 기리나뇨?”

그 중 오생이라는 자가 답하되 “그대 눈이 높아 그러하거니와 물정을 모르는 말을 말라. 이 그림이 말하는 듯 보는 듯하니

¹⁰크게 꾸짖어 ¹¹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어찌 명화가 아니리요?”

운치 웃고 값을 물은즉 오생이 대답하되 “은자 오십 냥이니 그림보다는 오히려 값이 적다.” 하거늘, 운치 왈 “내게 한 족자가 있으니 그대 등은 보라.” 하고 소매 안에서 미인도를 내어놓으니, 그 미인이 가장 아름다운데 몸에 녹의홍상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썼으며 진짓 천향국색이요 절대가인이라. 제인이 보고 칭찬 왈 “이 그림도 생기 온전하여 우리 족자와 방불하도다.” 하거늘, 운치 냉소 왈 “그대 족자도 좋다 하려니와 생기는 이 족자만 못하니 이 화격을 보라.” 하고 족자를 걸며 가만히 부르되 “주선량은 어디 있나뇨?” 하니 문득 이 미인이 대답하며 동자를 데리고 나오거늘

운치 왈 “모든 공자께 술을 부어드리라.”

선량이 대답하고 잔에 술을 부어드리니 운치 먼저 마시고 차례로 제인이 받아마시매 주미 가장 감열한지라.

제인이 배주를 파한 후에 선량이 주안을 거두어 그림이 되어 들어서니, 제생이 대경하여 서로 이르되, “이 그림은 천상 조화도 아니요 몽중 희롱도 아니니 만고에 희한한 보배라” 하더니

오생이 왈 “내 시험하리라” 하고 운치에게 청하되, “우리들이 술이 나쁘니¹ 원컨대 내 주선량을 불러 술을 더 청하여 보라?” 운치 허락하거늘 오생이 가만히 주선량을 불러 왈 “술이 나쁘니 더 먹기를 청하노라.” 하니 주선량이 대답하고 술병을 들며 동자는 상을 가지고 의연히 나와 병을 기울여 술을 부어드리는지라. 오생이 먼저 먹고 제생이 차례로 일배씩 마신 후에

¹부족하니

일어나 사례 왈 “오늘 존공을 만나 좋은 술을 먹고 신기한 일을 보매 가장 다행하도다.”

운치 왈 “이 족자 그림이 비록 생기 있으나 쓸 데 없고 또 그림의 술을 먹고 무슨 사례 있으리오.”

오생 왈 “족자를 쓸 데 없거든 내게 팔고 감이 어떠하뇨?”

운치 왈 “부디 가질 사람이 있거든 팔고저 하노라.”

오생이 값을 물은대 운치 왈 “술병 가진 이는 천상 주선랑이요 술이 일생 마르지 아니하니 극진한 보배라. 그런 고로 은자 천 냥을 받고저 하노라.”

오생 왈 “값의 다소는 불계하고 형은 내 집으로 감이 어떠하뇨?”

운치가 허락하고 한가지로² 오생의 집에 가서 족자를 주며 왈 “내 명일에 올 것이니 값을 차려두라.” 하고 가더니

오생이 대취하매 족자를 외당 벽상에 걸고 보니 주선랑이 병을 들고 섰거늘 오생이 그 고운 태도를 흠모하여 옥수를 잡아 무릎 위에 얹히고 사랑함을 이기지 못하여 침석에 나아가고저 할 즈음에 문득 문 열리는 곳에 급히 달려들어오니 이는 오생의 처 민씨라.

원래 민씨는 투기의 선봉이요 시샘의 대장이매 남의 일을 보아도 칼을 들고 내닫는 성벽이러니, 차야에 오생의 희롱함을 보고 대로하여 선랑을 치려 할새, 선랑이 벌써 그림 화상이 되었는지라. 민씨 더욱 분노하여 족자를 미여³ 찢어버리니 오생이 대경 왈 “남의 족자를 사려 하고 은자 천 냥을 상약하였거늘

²함께

³구멍을 냄

임자가 오면 어찌 하리요?”

민씨 왈 “임자 오거든 내 마땅히 질욕⁴하리라.” 하며 서로 다툼을 마지 아니할새

마침 운치 오거늘 오생이 맞아 그 사연을 이른다, 운치가 듣고 민씨를 속이고져 하여 민씨를 금사망에 씌우니, 민씨 속은 사람이나 몸은 대망이라, 말을 하려 하나 말이 나지 아니하고 일어나고자 하되 운신할 길이 없는지라.

운치가 오생더러 왈 “그대를 위하여 족자를 두고 갔더니 이제 보배를 없이하였으매 그대를 만남이 불행하거니와, 그대 집에 큰 변이 날 것이니 조심하라.”

오생이 왈 “무슨 변괴뇨?”

운치 왈 “그대 집에 천년 묵은 짐승이 매양 그대 부인이 되어 작변하리라.”

오생 왈 “무슨 일로 요열이 작변하리요?”

운치 왈 “그대 부인이 내 족자를 찢었으매 요열이 되어 작난하리니, 그내는 방문을 열고 보라.”

오생이 믿지 아니하여 방문을 열고 본즉 과연 민씨는 간 데 없고 길이 세 발은 되는 대망이 었드렸거늘, 오생이 대경실색하여 나와 운치에게 왈 “과연 대망이 있으니 죽이고져 하노라.”

운치가 말려 왈 “그 요괴는 천년 묵은 정령이니 만일 죽이면 대화가 일어날 것이니 내 부적 한 장을 대망의 허리에 매어두면 금야에 자연히 스러지리라.” 하고 부적을 내어 대망의 허리에 매고 당부하여, “문을 열어보지 말라.” 하고

⁴나무라고 욕함

돌아가 날 새기를 기다려 오생의 집에 가서 민씨를 보고 꾸짖어 왈 “네가 가군을 업수이여겨 포악을 일삼으며 투기를 숭상하여 심지어 남의 족자를 찢고 나를 욕하매, 그 죄로 금사망을 씌워 돌구멍에 넣어 고초를 겪게 하려 하나니 이제 허물을 고칠진대 금사망을 벗기리라.” 하니 민씨 고개를 쫓거늘, 운치가 진언을 염하니 금사망이 절로 벗겨지매 민씨 황연히 일어나 백배 사례하더라.

9. 양봉안의 상사병

친구 양생을 위하여 과부를 납치하다

운치 집으로 돌아오다가 전일 동학하던 양봉안이란 사람을 찾아가본즉 병 들어 누웠거늘, 운치가 놀라 병 증세를 자세히 묻거늘

양생 왈 “심복이 아프고 식음을 전폐한 지 오래매 다시 회생치 못할까 하노라.”

운치 진맥하고 왈 “이 병이 사람을 생각하여 난 병이니 누를 말미암아 이 병이 났나뇨?”

양생 왈 “과연 그러하도다. 다름이 아니라 남문 안 해현동에서 사는 정씨란 여자는 경국지색이요 일찍 과거한지라. 우리 삼촌 집과 격린하였으매 담 사이로 우연히 본 후로 사모하는

마음이 일일 간절하여 병세 여차하니 필경 세상을 불구할까¹ 하노라.”

운치 왈 “말 잘하는 매파를 보내어 통혼하여보라.”

양생 왈 “형이 아무리 재주가 능하나 그 여자를 데려오지 못하리니 부질없이 생의치 말라.”

운치 왈 “형은 염려 말라.” 하며 구름을 타고 가니라.

차설, 정씨는 일찍 과거하여 주야 슬허하며 죽고져 하되 위로 노모가 계시고 다른 동기 없는 고로 모녀가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는지라. 일일은 정씨가 심회를 정치 못하여 방중에서 배회 하더니, 문득 구름 속에 일위 선관이 홍포옥대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 옥홀을 쥐고 청음 낭성으로 불러 왈 “주인 정씨는 나와 옥제의 교명을 들으라.” 하거늘 정씨가 차언을 듣고 모친께 고한대, 그 모씨가 놀라며 괴이히 여겨 급히 청상에 향안을 배설하고 정씨는 뜰에 내려 엎드린대,

운치가 이르되 “문 선랑아, 인간 재미 어떠하뇨? 이제 천상 요지 반도연에 참례하라.” 하거늘,

정씨가 옥책을 들고 대경 왈 “첩은 인간 더러운 몸이요 또한 죄인이라, 어찌 천상에 올라가리요?”

운치 왈 “문 선랑은 인간 더러운 물을 먹어 천상 일을 잊었도다.” 하고 호로파에 향운을 가득 부어 동자로 하여금 권하거늘, 정씨가 받아마신즉 정신이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는지라. 운치가 인하여 정씨를 구름에 싸 공중에 오르니 그 모씨 공중을 향하여 무수 하례하더라.

¹오래지 않을까

강남도령에게 혼나는 전운치

이 때에 강남도령이 모든 거지를 모아 저자거리로 다니며 양식을 빌더니 홀연 향취 용비하며 채운이 동남으로 가거늘, 강남도령이 치밀어보고² 손을 들어 한번 구름을 가르치니³ 운문이 절로 열리며 선관과 고운 계집이 땅에 떨어지니 이는 전운치라.

운치 정씨를 데려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가더니 문득 검은 기운이 공중에 오르며 법술이 절로 풀려 땅에 떨어지매 운치가 대경하여 좌우를 살펴본즉 아무것도 없거늘, 고이히 여겨 다시 술법을 행하려 할새,

문득 한 거지 아이가 나와 대매 왈 “필부 전운치는 들으라. 네 요술을 배워 하늘을 속이고 열부를 휘절코저 하니 어찌 명천이 무심하시리오? 이러므로 나로 하여금 너같은 놈을 죽이라 하심이니 나를 원망치 말라.” 하거늘

운치 대로하여 찼던 칼을 빼어 저히고저⁴ 한즉, 그 칼이 화하여 백호가 되어 도로 운치를 해하려 하니, 운치 의심하여 피하고자 하다가 문득 두 발이 땅에 붙고 움직이지 못하매 급히 변신코저 하나 법술이 행치 못하는지라.

운치 대경하여 살펴본즉 그 아이의 상이 남루하나 도술이 높은 줄 알고 몸을 굽혀 빌어 왈 “소생이 눈이 있으나 명율이 없어 선생을 몰라보오니 그 죄 만사무척이오나 고당에 노모가 계시고 집이 빈한하여 능히 봉양할 수 없어 부득이 임금을 속임

²쳐다보고

³가리키니

⁴저히다: 위협하다

이요, 두번째는 목숨을 도모함이요, 이제 정씨 절행을 해하려 함은 병든 벼를 살리고자 하옵이니, 원컨대 선생은 죄를 사하시고 선도를 가르치소서.”

강님도령 왈 “그대가 이르지 아니하여도 나는 벌써 알았거니와, 국운이 불행하여 그대같은 요술이 무란히 작변하매 그대를 죽일 것이로되 그대 노모 정상을 생각하여 아직 살리나니, 이제 빨리 정씨를 데려다가 제 집에 두고, 양가는 좋은 계교로 살려내되, 정씨를 대신할 사람이 있으니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혈혈무의하여 극히 빈한하나 그 마음이 어질고 성이 정씨요 나이 또한 삼팔이니, 그대 만일 내 말을 어기면 몸에 대화가 미치리라.”

운치 사례 왈 “선생의 고성대명을 알고저 하나이다.”

기인 왈 “나는 강님도령이니, 세상을 희롱코저하여 두루 다니노라.” 하고

요술 행하는 법을 도로 주어 놓아주니, 운치가 즉시 정씨를 데리고 정씨 집에 가서 공중에서 그 모친을 불러 큰소리로 왈 “아까 옥경에 올라간즉 상제 이르시되, 문 선랑이 아직 죄가 진하지 못하였으매 도로 인간에 보내어 고행을 더 지낸 후 데려오라 하시기로 도로 데려왔으니 부디 선심을 닦게 하라.” 하며 향약을 내어 정씨 입에 드리우니 이윽고 정씨 깨어 정신을 차리더라.

다른 정씨를 데려가다

재설, 운치가 다시 강님도령께 가서 그 여자의 거처를 물은 데, 강님도령이 환영단을 주며 그 집을 가르치거늘,

운치 하직하고 그 집을 찾아가니, 일간 모옥이 퇴락한 곳에 한 여자가 시름을 띠어 홀로 앉았거늘, 운치가 나아가 달래며 왈, “낭자의 고단함은 내 이미 알았거니와 낭자의 춘광이 삼 칠이 지나도록 출가치 못하여 외로운 경상이 가궁한지라. 내 낭자를 위하여 중매 되고저 하노라.”

낭자가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거늘, 운치가 인하여 환영단을 먹이고 물을 뿜으며 진언을 염하니 의심없는 정가녀의 얼굴이 된지라.

운치가 정씨에게 양생의 병든 곡절과 정녀를 데려오던 사연을 이르며 여차여차하라 하고 보자기를 씌워 구름을 타고 양생의 집에 가, 그 여자를 외당에 두고 내실에 들어가 양생을 보고 왈 “과연 정녀의 절행이 높으매 감히 말을 발보이지⁵ 못하고 그저 왔노라.”

양생이 추연⁶ 탄⁷ 왈 “형의 재주로도 성사치 못하니 어찌 다시 생의나 하리요?” 하거늘, 운치가 만단개유⁸하며 무수히 조롱하다가 왈 “내 이번에 정녀는 못 데려왔거니와 정녀보다 십 배나 더 고운 미인을 얻어왔노라.”

양생 왈 “내 미인을 많이 보았으나 정녀같은 인물은 없으니 형은 모름지기 농담을 말지어다.”

⁵단서를 꺼내보이다 ⁶처량하고 슬프게 ⁷탄식하여 ⁸여러 말로 타이름

운치 왈 “내 어찌 병인과 희롱하리요? 이제 외당에 두고 왔으니 이는 경성지색이라. 나가보면 알리라.” 하니

양생이 반신반의하여 강잉히 일어나 외당에 나가본즉 과연 일위 미인이 소복을 하였는데 뚜렷한 얼굴은 추천 명월이요, 분명한 눈썹⁹은 샛별같아서 천태만상이 비할 데 없는지라. 양생이 한번 보매 이는 오매사복¹⁰ 하던 정씨거늘, 양생이 정신이 황홀하여 여취여광¹¹하여 반갑고 즐거움을 차마 못 이기어 이후는 병세가 점점 나아가더라.

10. 서화담을 만나다

각설, 운치가 호주¹를 보고자 하여 예단을 갖추어 가지고 호주로 가니라.

이 때에 서화담이 시동에게 분부하여 왈 “금일 오시에 전생이란 사람이 올 것이니 초당을 쇠소하라.” 하더니,

차시 운치가 산문에 다달아 완보하여 두루 구경한즉 송죽은 창창, 간수²는 잔잔한데, 미록³은 벼를 찾아다니며 백학은 춤을 희롱하니라. 이 진짓⁴ 별유천지비인간⁵이라.

죽림 사이 시비에 나아가 두드리니 동자가 나와 문 왈 “선생

⁹눈매 ¹⁰자나깨나 늘 생각함. 시경에 나오는 구절에서 온 표현.

¹¹취한 듯 미친 듯 ¹지명으로 쓰인 듯 ²숲 사이로 흐르는 물

³고라니와 사슴 ⁴짐짓. 마치. ⁵이백의 시 산중문답에 나오는 구절. 별천지로 인간 세상이 아닌 듯하다.

이 그 아니 전공이신가?”

운치 왈 “동자가 어찌 나를 아느냐?”

동자가 왈 “아침에 선생이 이르시고로 아나이다.”

운치가 대희하여 동자로 하여금 폐백을 받들어 드리고 뵈음을 청한대, 화담이 즉시 초당으로 청하여 빈주지례를 마치고 말씀할새,

운치 왈 “소생이 선생의 높은 이름을 우레같이 듣잡고 불원천리하여 왔사오니 선생의 가르치심을 바라나이다.”

화담이 손사⁶ 왈 “전공이 나를 맥반으러⁷ 왔도다. 내 무슨 도학이 있관대 이같이 과찬하나뇨? 내 들으니 그대 법술이 높아 모를 일이 없다 하매 한번 보기를 원하더니 이제 만나매 평생 만행⁸이로다.”

운치 일어나 칭사하고 종일 한담하더니 화담이 시비를 명하여 주찬을 재촉하고 또 칼을 빼어 벽상에 꽂으니 신선의 영출주가 주준⁹에 흘러 잠깐 사이에 한 항¹⁰이 차거늘 즉시 칼을 빼고, 북벽에 걸린 족자 그림에 빛난 채각이 뚜렷한데 사창을 열고 본즉 채의 입은 선녀가 주반을 갖추어 들고 나와 운치 앞에 놓고 잔을 받들어 술을 권하거늘, 운치 받아먹은즉 극히 향기로운지라.

화담께 칭사 왈 “소생이 선경에 이르러 경장옥액¹¹과 진수미찬을 맛보오니 지극 감사하여이다.”

화담이 소 왈 “그대 어찌 박주 *** 일컫느뇨?” 하며 서로

⁶겸양의 말 ⁷의중이나 행동을 살핌 ⁸만 번 다행 ⁹술항아리

¹⁰항아리 ¹¹신선이 마시는 음료수나 술. 옥액경장이 바른 말이다.

수작할새

용담과 재주를 겨루다

문득 일위 선생이 갈건야복으로 들어와 가로되, “좌객은 뉘 시뇨?”

화담 왈 “남서부에 있는 전공이니라.” 하고 운치를 향하여 왈 “이는 나의 아우 용담이어니와 그대와 일면지분이 없기로 대객지도¹²를 잃었으니 그대는 용서하라.”

운치가 눈을 들어 용담을 보니 미목이 청수하고 골격이 현양하여 위풍이 사람을 놀래게하는지라. 이윽고 용담이 운치에게 예하여 왈 “선생의 높은 술법을 들은 지 오래되 금일에야 서로 만남이 천만 번 늦도다. 그러하나 원컨대 선생의 도술을 한번 구경코저 하노라.”

운치 왈 “용렬한 사람이 어찌 도술이 있으리요?”

용담이 재삼 간청한대, 운치 한번 시험코저 하여 즉시 진언을 염하니 용담이 쓴 관이 변하여 뿔이 세 발이나 되는 쇠머리 되어 석상에 떨어져 눈을 실룩이고 입을 벌리니 용담이 자기 쓴 관을 쇠머리 만듭을 보고 노하여 즉시 진언을 염한즉 운치가 썼던 것이 변하여 돼지의 머리 되어 암상¹³에 내려져 어금니를 드러내고 귀를 떨어져 기는지라.

운치가 생각하되, ‘차인의 재주가 비상하니 가히 겨루어보리라.’ 하고 제두¹⁴를 향하여 진언을 염하니 돼지의 머리 변하여

¹²손님을 대하는 도리

¹³안상. 식탁 위

¹⁴돼지머리. 저두.

세 가락 장창이 되었거늘, 용담이 또한 우두를 향하여 진언을
염하니 쇠머리 변하여 큰 칼이 되어 장창과 공중에 올라 어우
러져 싸우니, 창검이 일광에 바애더라.¹⁵

용담이 또 부채를 던지며 진언을 염하니 칼과 부채가 화하여
적룡과 청룡이 되고, 운치가 쥐었던 선추¹⁶를 던진즉 창과 선추
가 화하여 백룡 흑룡이 되어 네 용이 어우러져 싸우매 운무가
자욱하고 벽력이 진동하여 불분승부러니, 청룡 적룡이 점점
시진¹⁷하거늘 화담이 헤아리되 두 사람이 재주를 겨루다가는
필경 좋지 아니하리라 하고 연적을 치치니¹⁸, 문득 그것이 모두
땅에 떨어져 화하여 도로 본상이 되는지라.

운치가 먼저 갓을 집어쓰고 선추를 거둔 후에 말씀을 화히¹⁹
하되, 용담은 즐겨 선자와 관을 거두지 아니하거늘, 운치 하직
왈 “오늘 외람되이 재주를 겨뤄 선생의 높* * * * * 그
죄 가장 크오매 후일에 사죄하리이다.” 하고 돌아가거늘,

화담이 운치를 보내고 용담을 꾸짖어 왈 “너는 청룡 적룡을
내고 운치는 백룡 흑룡을 내니 청은 목이며 적은 화요 백은 금
이며 흑은 수니, 오행의 금극목 수극화라. 네 어찌 운치를 이기
며 하물며 내 집에 온 손을 부질없이 겨루어 해코저 하나뇨?”

용담이 사죄하나 마음에 가장 운치를 노하여 해할 뜻이 있
더라.

¹⁵번쩍이더라. ¹⁶부채고리 ¹⁷기운이 빠져 없어짐 ¹⁸치뜨리다.
위로 올려 굶는 모양. ¹⁹온화하게

화담에게 헛되이 약속하고 가르침을 받다

그 후 삼일만에 운치 화담을 찾아뵈온대, 화담 왈 “내 그대에게 청할 일이 있으니 즐겨 좇을꼬냐?”

운치 왈 “무슨 일이니이꼬?”

화담 왈 “남해 중에 큰 산이 있으니 명 왈 화산이요 그 산중에 도인이 있도되 도호는 운수선생이라. 내 *소로 수학하더니 그 선생이 여러 번 글월을 부쳤으되 지금(껏) 회사치²⁰ 못하였나니, 이제 그대를 만났으매 그대 가히 다녀올꼬냐?”

운치 흔연히 허락하거늘, 화담 왈 “내 생각건대 화산은 해중이니 쉬이 다녀오지 못할까 하노라.”

운치 왈 “소생이 비록 무재하오나 순식간에 다녀오리다.”

화담이 종시 믿지 아니하거늘, 운치 내림에 화담이 업수이 여기는가 하여 왈 “생이 만일 순식간에 다녀오지 못하거든 이에서 죽어도 다시 산문을 나지 아니하리이다.”

화담 왈 “진실로 그러할진대 가려니와, 행여 실수 있을까 하노라.” 하고

즉시 글월을 닦아주니, 운치 받아가지고 변신하여 해동청보라매 되어 공중에 올라 해중을 향하여 가며 바라보니, 난데 없는 그물이 앞을 가리웠거늘, 운치가 넘어가려 한즉 그물이 오르는대로 높아져 앞을 가리우며, 운치가 소소떠²¹ 아무리 그물을 넘으려 하되 그물이 점점 따라 높아져 하늘에 닿았고 아래 버리는 물 속에 잠겼는지라. 또 좌우편으로 높이 떠 가려

²⁰사례하는 뜻을 표함

²¹솟아올라

하나 그물이 천변에 닿았으매 화산을 갈 수 없어 십여 일을
죽기로 그윽하여 애를 쓰다가, 할 일 없어 돌아와 화담을 보고
해중에서 신고²²하던 사연을 ***²³

화담 왈 “그대 큰 말 하고²⁴ *** ***** *줄
산문함이 어떠하뇨?”

운치 **** 달아나고저 하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삼이
되어 달려드니 운치 일이 급하매 변신하여 보라매 되어 날려
한즉, 화담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를 물어 박지르고²⁵ 대매
왈 “너같은 요술이 기군망상하고 작난이 무상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요?”

운치 애걸 왈 “선생의 *고하심을 모르고 존위를 범하였으니
죄당만사이오나, 소상에 노모가 있사오니 원²⁶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²⁷”

화담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무상한 일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기세 후에 나와 영
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음이 어떠하뇨?”

운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하고

²²고생 ²³고한대 ²⁴큰소리치고 ²⁵차서 쓰러뜨리고 ²⁶원
컨대 ²⁷남은 목숨을 빌려주소서.

11. 뒷이야기

인하여¹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운치 모부인이 졸하니 운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년을 받들더니,

일일은 화담이 왔거늘 운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예필 좌정 후에 화담 왈 “그대와 상약한 일이 있으며 그대 재상²함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석갑에 가두고 그 굴혈을 불지름이 어떠하뇨?”

운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시면 진실로 일국의 만행일까 하나이다.”

화담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수습하라.” 하거늘

운치 대*하여 가산을 흠어 노복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결 하나니 여등은 무양히 있어 나의 조선향화를 받들라.” 하고 선영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셔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후사³는 알지 못하니라.

丁未 仲春 由谷 新刊

¹그 후

²부모 상중에 있음

³이후의 일

케.이.텍.문.고 007 전운치전

초판 제1교 | 펄낸 날 2011년 10월

지은이 | 미상 (고전소설)

옮긴이 | Nova De Hi

펴낸이 | 케이텍문고 편집실

펴낸곳 | 케이텍

값 | 0,000원

잘못된 책도 바뀌드리지 않습니다.
